

4347 첫 발표·토론 및 모두모임

- 때 : 8. 11. (한날, 월) 13:30~
- 곳 : 진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 도움 : 진주교육지원청

토박이말바라기

<모임 차례>

| | | |
|--------------|---------------------------|----------------------------------|
| 13:30-14:00 | 맞이하기와 인사하기 | |
| 사회: 이창수(두루빛) | | |
| 14:00-14:10 | 여는 마당(노래, 배 띄워라와 2곡) | 박보란(새노리) |
| 14:10-14:20 | 인사말씀 | 김수엽(으뜸빛) |
| 14:20-15:20 | · 특강-신문과 함께한 우리말 사랑 | 최인호(한겨레신문교열국장 , 한겨레말연구소장 지내심) |
| 15:20-15:40 | · 발표1-토박이말을 가르치고 배우며 | 윤지나(금곡초등학교) |
| 15:40-16:10 | · 발표2-배곳(학교)에서 되찾아 쓸 토박이말 | 이창수(용산초등학교) |
| 16:10-17:00 | 모두모임 | |
| 17:30- | 저녁(뒤풀이) | 오신 분 모두 |

<특강>

신문과 함께한 우리말 사랑

최인호(전 한겨레 심의실장)

1.완전원고 수첩, 모자라는 얘기

1-1.순진한 생각

한글은 쉽다, 글자살이도 기계로 하니 더욱 그렇다.

그러니 손볼 것 없는 기사를 써 내라. 완전원고를 써 내라는 말이다.

1987년 당시, 한글 가로짜기 신문을 내기로 한 데는 두어 가지 명분이 있다. 좁은 새롭기도 할뿐더러, 나아가 민중과 민주, 통일의 바탕으로서 그것이 걸맞은 연장이기도 한 때문이다. 다른 쪽으로는 한글 가로쓰기가 눈과 손의 움직임과 어울리고 기계화에도 걸맞기 때문이다. 이는 곧 밀천(자본)이 덜 든다는 데 쓸모가 있었다.

그로써 나온 요구이자 구호가 완전원고였다.

남이 보아서 고치고 다듬어 주리라는 생각을 버리라. 손질하지 않아도 될 온전한 기사를 쓰라는 얘기였다. 대학공부까지 했으니 신문기사 정도야 쉽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마땅한 주문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완전원고 수첩>이란 게 있다. 기사쓰기 바탕으로 한겨레에서 엮은 책이름이다.

1-2.우리말은 어렵다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우리말에 들어있는 술한 한자말이나 들은말들이 말글을 어렵게 한다.

우리가 그런 말을 쓰는 사이 토박이말을 제대로 쓰지 않아 오히려 낯선 말이 되었다. 낯선말은 또다른 어려움을 준다.

이런 두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깰 것이냐?

낯익게 하는 것이다. 가르치고 자주 만나게 하는 일, 그것 말고 무엇이겠는가.

돌이켜보면 우리말은 글자에 치이고 문자말에 치였다. 신라 이래 우두머리 집단의 한자 의존, 모화 사상, 공맹, 주자, 성리학, 한문으로 된 불교 기타 종교, 외래 사상에 치우친 탓이다. 그런 조건에서 세종은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이를 베풀어 쓴 여러 언해, 허균, 김만중, 춘향전 지은이들, 술한 언문 기행문들은 놀랍다. 시조와 민요, 민담들이 살아남은 것도 놀랍다.

우리말이 어려워진 까닭은 오래도록 갈고닦지 않았고, 그것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복 70년이 되도록 어려움은 더해간다. 이건 국어학자나 교사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제가 아는 몇몇 작가들은 고등학교나 대학시절 토박이말 노트를 만들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작품이 그렇게라도 하지 않은 소설가들보다 훨씬 탄탄한 글, 재미나고 실감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봤다. 하물며 어린 시절에 그런 배움이 있다면 소설만이 아닌 여러 분야에서 좋은 글이 나올 줄 안다.

2. 몇 가지 작은 성과

신문에서 토박이말을 다루기는 쉽지 않다. 신문기사란 워낙 사람이나 나라, 단체, 기업체들 고유명사를 많이 쓴다. 법률, 행정문투, 전문용어들은 한자말, 영어 일색이며, 새로 만든 말 역시 억지로 뭉뚱그려 만든 한자말이거나 잡탕말이 많다. 이를 쉽게 쓰자는 쪽으로 일을 해 왔다. 말하자면 쉬운말을 쓰자, 중학생이 읽을 수 있는 쉬운 기사를 쓰자는 것이다.

*한자와 로마자를 쓰지 않는다.

ㄱ씨, ㅇ군, ㅈ학교, 아에프페, 엘지, 에스케이 들

*쉽게 바꿔 쓸 수 있는 한자말

모/아무개, 경/께, 입장, 역할 들

*보도자료 문투, 행정용어 걸러내기

삭감하는/줄이는, 삭감해야/줄여야, 삭제됐으며/뺐으며, 하향조정하다/낮추다, 낮춰잡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결과가 심각할 것이다, 심각한 결과를 부를 것이다 모임을 갖고/모여, 각 자치구별로/자치구별로, 시군 단위까지 확대 실시할 방침/ ~ 확대할 방침, 야영행위를 자제하도록/야영을 ~,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효율을 높이고자

*군더더기, 번역문투 줄이기

~에 대한, ~에 대해, ~에 따르면, ~을 위해, ~기 위해, ~에 따르면

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아무개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이 독점하고/북한 정보를 ~.

*먹거리, 걸림돌, 노동자(일꾼), 굶긴소식(부음)

*잘못된 관행 깨뜨리기

그러나 쉬운말 쓰기와 토박이말 쓰기는 좀 다르다.

3. 말과 글로 먹고사는 사람들

말글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닌 사람이 없지만 특히 말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이들이 적지 않다.

언론인/글쟁이(신문), 말쟁이(방송)

법조인, 교수와 교사들, 문필가들(글쟁이들)

여기서, 교사, 교수들은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영향력이 크다.

그런데 그들은 잘 연구하고 가르치는가? 그들이 쓴 글과 말은 어떤가?

특히 교수들 가운데는 어려운 말, 전문용어를 쓰는 데 선수들일 뿐인 사람이 많다. 토박이말 쓰기가 제일 시급한 사람들이 그쪽 분야다.

얼마전 ‘언어 전략’이란 말을 쓰는 국어학자를 보았다. 아마 버블 스트래티지(verbal strategy, language strategy)를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언어 사용, 말하기 정도로 해도 될 것을 그렇게 말하는 모양이었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하는 대통령이나 일부 정치인들의 말을 애깃거리로 삼는 자리였다. 어떤 이는 웰빙촌이니 힐링촌이란 말을 자주 하는데, 유행어란 목숨이 짧은 법이어서 걱정거리는 아니나 말만들기 풍조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걱정거리다.

4. 토박이말은 쓸모가 없다?

토박이말은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쓰지 않으니 낫설어진다. 이런 풍조를 어떻게 꺾 것인가? 많은 언어학자들은 말이란 어차피 변하는 것이니 자연스럽게 놔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가? 그렇다면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역시 실용성, 아니 쓸모인가?

또 하나, 다행히 광에 들어가 먼지를 쓰고 있을지라도 갈무리가 되어 있으면 다행이다. 그렇지 못한 말도 술할 터인데, 이는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 일도 쉽지 않다.

토박이말을 쓰는 데 쓸모가 있도록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저 토박이말이니 써야 한다고 말하기보다, 씀으로써 어떤 성금이 있는지 알려야 한다고 본다. 우리 생각을 가멸지고 살지게 한다면 실제로 그런지 보여야 한다. 그래서 본보기가 절실하다.

말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쓰지 않으면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토박이말은 오래도록 우리와 삶을 함께했다. 거기엔 땀과 숨결이 깃들여 있다. 그래서 끄집어내어 한두번 쓰기만 하면 살아난다. 쓰면 쓸모가 생긴다. 쓸모가 없다고 팽개친 사람은 누군가. 우리들이다. 살려서 쓸모가 있도록 해야 할 쪽도 우리다. 쓸모가 있도록 하자면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본보기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 그분들에게 대답을 듣고 싶다.

< 발표 1 >

토박이말을 가르치고 배우며

윤지나(금곡초등학교)

<PDF 파일 끼워 넣어 주세요>

배곳(학교)에서 되찾아 쓸 토박이말

이창수(사천용산초등학교)

6-1-과-1, 28. 전개도→펼친그림

‘전개도’는 풀면 바로 ‘펼친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배움책에서는 쓰지 않으니 안타깝습니다. ‘전개도’는 ‘펼친그림’으로 풀어 주면 좋겠습니다.

6-1-과-1, 28 관찰하다→살펴보다

‘관찰하다’란 말도 나옵니다. ‘관찰’도 한자말로 한자로 적으면 ‘觀察’이지요. ‘볼 관’에 ‘살펴 찰’입니다. 여러분은 ‘보다’와 ‘살펴보다’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보다’는 말그대로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고, ‘살펴보다’는 꼼꼼히 이리저리 따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다’와 다른 ‘살펴보다’란 토박이말이 있는 것이지요. ‘관찰’은 그 뜻을 보아도 바로 토박이말 ‘살펴보다’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관찰’이란 말을 써야 할까요?

6-1-과-1, 34. 수조→물그릇

‘수조’도 한자말로 한자로 적으면 ‘水槽’이지요. ‘물 수’에 ‘구유 조’입니다. ‘구유’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그릇입니다. 한자 뜻대로 하면 ‘물구유’가 되지요. 우리가 배울 때 쓰는 것이 ‘물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을 담은 통/그릇이니 ‘물통’, 또는 ‘물그릇’이라 해도 우리가 배우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듯합니다.

6-1-과-1, 29, 33, 35: 직진→곧게 나아감, 반사→되쏘임, 굴절→꺾임

‘빛의 성질’ 배움 마당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빛이 ‘곧게 나아가는 성질’이라고 풀이를 하면서 ‘직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이 곧게 나아가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아이도 ‘직진’이란 말을 모르면 ‘빛의 성질’을 모르는 아이가 되고 맙니다. ‘반사’는 빛이 곧게 나아가다가 물체의 표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고, ‘굴절’은 빛이 다른 물질 속으로 들어갈 때 ‘꺾여 들어가는 현상’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꺾인다’는 말이 들어가 여간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반사’는 ‘되쏘임’으로, ‘굴절’을 ‘꺾임’이라고 하면 얼른 알아차리고 잘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6-1-과-1, 35. 근시(안)경→줄보기, 원시(안)경→돋보기

아이들이 많이 헷갈리는 말이 근시(안)경과 원시(안)경입니다. 하지만 ‘줄보기’와 ‘돋보기’로 풀이하면 좋습니다. 줄보기와 돋보기는 ‘줄다’와 ‘돋다’에서 온 말입니다. ‘줄다’는 ‘줄다’의 작은말입니다. ‘줄보기’를 들고 보면 글씨가 줄아 보이고 ‘돋보기’로 보면 글씨가 크게 돋보이기에 참 쉽습니다. 이 말을 알고 나면 진화(進化)는 ‘돋되기’, 퇴화(退化)는 ‘줄되기’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6-1-과-1, 40 예상하다→미루어 생각하다

‘예상하다’의 ‘예상(豫想)’은 ‘미리 예’에 ‘생각할 상’에 ‘하다’가 더해진 말이지요. ‘예상하다’는 한자말 뜻풀이까지 해보면 ‘미리 생각하다 하다’가 됩니다. ‘상’자에 ‘하다’라는 움직임의 뜻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토박이말 ‘하다’가 더해진 꼴이지요. 이런 비슷한 말이 많지요. 한자말 뒤에 ‘하다’가 붙어 된 말은 거의 다지요. 한자말이 우리 나날말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좋은 보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미루어 생각하다’란 말을 써도 될 듯합니다.

6-1-과-2, 70. 단백질→흰자(질), 지방→(굳)기름

단백질, 지방이 익어서 낫선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때 배움책에서 쓰였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날말로 달걀에서 ‘흰자’, ‘노른자’를 가리는 것을 생각하면 어느 쪽이 더 쉬운지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6-1-과-3, 92. 계절→철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는 것을 말하지요? ‘계절’은 한자말로 ‘끝 계, 마디 절’입니다. 한자만 놓고 보면 ‘끝마디’입니다. 우리 토박이말 ‘철’이 있지요?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이라고 하잖아요? 왜 교과서엔 그런 말이 쓰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떻게 만들어진 말인지 물어 봅시다.

6-1-과-3, 93. 태양→해, 게임→놀이

나날살이에서 ‘태양’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배움책에는 ‘해’는 나오지 않습니다. ‘게임’에 놀려서 ‘놀이’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되살려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6-1-과-3, 106. 지구→땅벌, 자전→제돌이

우리 겨레 사람 누구보다 더 우리 겨레와 우리말을 사랑한 분이 험버트 박사님입니다. 그 분이 지은 ‘사민필지’에 보면 ‘지구’를 ‘땅벌’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예쁘지 않은가요?

그리고 자전은 ‘제 힘으로 돈다’는 뜻이니 ‘제돌이’라고 하면 참 쉽습니다. ‘자전축’은 ‘제돌이굴대’가 되겠지요?

6-1-과-4, 124. 생물→살이

이기인님이 쓰신 ‘사리갈말’이란 책에 보면 ‘生物(생물)’을 ‘사리’라고 했습니다. ‘생물’은 ‘살아 있는 무리’니까 ‘살다’의 줄기 ‘살’에 ‘이’를 더한 ‘살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니 ‘사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적는 것이 말미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1-과-1, 124: 동물→웁살이, 식물→문살이

‘동물’의 말미를 따져 보면 토박이말이 아니라 한자말이지요. 한자로 쓰면 ‘動物’이지요. 풀이를 하자면 ‘움직이는 사물’라고 할 수 있답니다. ‘동물’은 움직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무리니까 ‘옮다’의 줄기 ‘옮’에 ‘사리’를 더해서 ‘옮사리’가 됩니다.

‘식물’은 ‘심을 식(植)’에 ‘사물 물(物)’이 더해진 낱말이지요. 한자의 뜻을 따라 풀이를 하면 ‘심은 사물’입니다. 우리가 ‘식물’이라는 것을 심기도 하지만 많은 것들이 절로 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땅에 제 뿌리를 묻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묻다’의 ‘묻’에 ‘살이’를 더하면 ‘묻살이’가 되지요.

모아된 말(합성어)은 제 나라말로 뜯어보아 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딴 나라 말로 엮어 만들어진 말이면 제 나라말을 배우는 사람이 제 나라 글 보다 먼저 딴 나라 글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말살이가 이랬으니 오늘날 우리 배움책에 있는 말들은 딴 나라 글로 만들어진 말이 거의 다가 되었지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말로 된 좀 쉬운 말로 가르치고 배우는 노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박이말로 바꾼 말들이 낯설긴 하지만 뜻을 담고 있으면서도 멋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귀맛나(흥미있어) 합니다.

6-1-과-1, 133: 기생→더부살이

‘기생’은 ‘더부살이’로 다듬어 쓴다고 해 놓았는데 ‘경쟁’, ‘공생’은 없습니다. ‘경쟁’은 서로 이기려고 겨루는 것을 말하니 ‘겨루기’요, ‘공생’은 서로 도우며 함께 사는 것이니 ‘도움살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6-1-과-5, 166: 스위치→여닫개

다른 나라말을 함부로 또는 마구 쓰는 것이 걱정인데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일에 힘과 슬기를 모으지 않으니 안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말을 제대로 만드는데 일도 해야 하지만 잘 만든 말은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스위치’는 ‘열다’와 ‘닫다’에 ‘-개’를 붙여 ‘여닫개’로 만들어 놓았는데도 잘 쓰지 않습니다. 배움책에서 살려 쓰면 될 일입니다.

6-1-과-4, 142: 편셋→집게,

‘편셋’이란 말이 나오네요. ‘편셋’은 들온말(외래어)이지요. 올곧이 제 나라 말만 쓰는 나라나 겨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나라말, 제 겨레말을 두고, 다른 나라말을 들여와 그것을 갈말(학술용어)로 쓰는 것은 어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것을 내팽개치고 남의 것을 까닭 없이 챙기는 꼴이지요. 토박이말 ‘집게’가 있습니다. ‘집다’의 ‘집’에 뒷가지 ‘게’가 더해진 말이지요. 우리말이 없어도 우리 말살이에 어울리는 말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우리 토박이말이 있는데 굳이 들온말을 쓸 까닭을 알 수 없네요. 우리는 ‘편셋’말고 ‘집게’라고 쓰면 좋겠습니다.